|  |  |  |
| --- | --- | --- |
| EMB00000e5c3d1e |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보도자료 | **58** |
| 2012. 6. 2(토) |
| Press Center 전화 (064) 780-8471 / 팩스 (064) 780-8466 |

아시아의 미래 전략

- 글로벌리더십, 위기극복의 길을 찾다

**○ 역할 참가자**

**사회 :** 한석희 HAN Seokhee (린디자인아시아 대표)

**발표 :** 김대곤 KIM Daekon (오방리더십센터 원장)

김선화 KIM Sunhwa (에프비솔루션즈 대표이사)

김용언 KIM Youngeon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본부 부장)

이상호 Lee Sangho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전공 교수)

이영기 Lee Youngki (한국철강 본부장)

조기숙 CHO Kisook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핵심 사항(Key Points)**

* 유럽연합은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고 일본은 2011년 자연 재해 이후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음
* 미국은 여전히 강국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만족할만한 상황이 아님
*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세계의 소비자로의 역할 전환에 대한 요구에 직면해 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경제, 정치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본 세션은 이러한 환경적 변화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아시아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 하에 여러 분야별 전문가가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아시아의 현상에 대한 진단, 미래 전망 등을 다루고 있음

**○ 발표자, 토론자별 발언내용**

▲ **한석희 (린디자인아사아 대표). Moderator**

*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미국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래로 그 위상이 빠르게 취약하게 변화하고 있음
* 유럽은 그리스 사태로 유발된 유로존의 붕괴 위험을 맞아 시계 제로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음
* 이제 세계의 중심은 아시아의 역할에 더욱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중요해 지고 있음
* 이미 중국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바야흐로 G2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고 있음
* 반면 한국은 놀라운 집중과 선택, 그리고 강한 다이나믹스의 저력을 발휘하며 1997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세상에서 경제, 정치의 위상 강화를 이어가고 있음
* 오랫동안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져 있던 문화면에서 서서히 자신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른 바 K-Pop이란 독창적인 다이나믹스를 통해 세계의 관심을 모아가고 있음
* 이런 자신감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는 점차 서양 문화 및 다른 선진국의 문화와 구분되는 영역을 선보이는 중에 있음
* 그러나 우리는 한중일의 위상이 지구촌에서 점차 더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상호 견제적인 시각보다는 서로 다른 부분, 또 강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상호 보완, 발전하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런 점에서 금일 패널리스트로 나오신 6분의 발표는 위기의 지구촌에서 떠오르는 아시아의 리더십의 이란 관점을 견지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이영기 (한국철강 본부장): 한국과 아시아의 강소기업들의 미래 역할과 리더십**

* 한국경제 성공의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성공에 있음
* 성공한 2개 회사의 성공사례와 원인에 대한 소개: SERM을 통해 성공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S(주체): 열린 네트워크, 고객중심, 빠른 의사결정, 글로벌화
* E(환경): 진입장벽, 차별화, 고객만족, 국제화
* R(자원): 조인터 벤처/조인터 쉐어 홀드, 유망한 해외 기업과 자본공유, 보상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동기 유발
* 완벽한 전략은 없으며,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다를 수 있으나, 앞서 소개한 2개의 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전략에 대하여 논하였음

▲ **김선화 (에프비솔루션즈 대표이사): 가족기업들의 활동과 향후의 리더십**

* 가족기업의 정의: 가족이 오너십과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 더 넓게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지만 지배권을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업
* 가족기업의 중요성
1. 세계 각국의 기업 중 60-90%를 가족기업이 차지하고 있음
2. 성과: 가족 기업의 성과가 비 가족기업보다 높음
3. 기업수명: 가족기업의 수명이 비가족기업보다 긴 편임
* 문제는 가족기업의 세대 이전의 성공 여부임: 2세대 승계 성공 비율 30%, 3대 승계 12%, 4대 성공 3%에 불과한 실정임

- 가족기업이 성공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요인은 가족지배구조에 있음

 - 가족 커뮤니케이션 (가족회의, 가족협의, 갈등관리)

 - 가족정책 (가족헌장, 가치&비전 공유, 가족고용정책, 후계자선발)

 - 가족재단 (사회적 책임, 가족의 화합 & 자녀교육)

- 가족지배구조가 잘 갖추지 않으면 기업승계에 성공하기 어려우며, 장수기업의 성공비결은 역시 가족지배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김용언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본부 부장): 에너지 위기 속의 아시아 발전**

* 전력수급의 신뢰도는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시장구조와 시장운영방식을 결정함
*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자유화가 진행 중에 있음. 그러나 전력시장 자유화는 투자의사 결정구조의 복잡성, 사업지연, 공익보다 이익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전력시장 자유화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쟁시장도입 이후에도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동남아 3개국의 전력설비 증설 현황
1. 베트남은 지금까지 민간발전 사업자 유치에 보수적인 입장임
2. 인도네시아 역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다가 Crash Program을 준비하여 1단계에서는 설계와 제작, 구매 그리고 설치/시운전을 일괄로 저가의 중국산에 의존하여 시급한 부족량을 해소하고 2단계로 민자발전 수준을 절반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3. 필리핀은 전력시장 개방이 가방 빨리 이루어진 국가임. 2007년에 이미 민자발전이 70%를 차지하고 있었고 판매부문까지 시장기능에 맡기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 다른 국가와 비교되고 있음
* 동남아시아 국가의 공통점은 IPP사업을 유도하고 있으나 Tariff가 현행 보다 10~20% 이상 높게 제시되어 물가상승에 미칠 영향으로 제때에 추진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발전소 기종과 출력이 IPP사업자 마다 다르므로 발전소 건설경험이 자국내에 축적되기 어려워 관련 기술 축적과 독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보인다.
* 반면 한국은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성공하였으며 최근 들어 세계 여러나라에 IPP사업자로 진출할 정도로 관련기술이 발달된 국가임
* 1, 2차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중유 중심에서 석탄화력 중심으로 발전연료원을 전환하면서 2011년 말 기준 석탄화력발전소 비중은 40% 정도로서 전원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성공요인
1. 첫째, 설계부분에서 선행호기 복제설계 효과를 얻었고
2. 둘째, 구매에서 반복제작에 의한 비용절감과 함께 국산화를 가능케 하였음.
3. 셋째, COSTRUCTION에서도 학습효과로 매 호기마다 공기단축을 이루게 되었음
* 국산화 과정에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에 의한 신기술개발이라는 메커니즘이 형성되며 턴키발주에 의한 외국기술 의존에서 벗어남으로써 국산화율 95%를 이루며 자국내 관련산업을 발전 시켜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게 하였음
* 이러한 성공에는 90년대 부터 50만kW급 석탄화력발전소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 것을 들 수 있음

▲ **이상호(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전공 교수): 한국 및 아시아의 방송통신의 역할**

* 방송과 통신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한국이 앞서 가는 나라이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슈를 정리하고자 함
* 대표적 분쟁 사례
1. 지상파 사업자와 통신(케이블) 사업자간의 갈등. 이슈: 콘텐츠를 보유한 지상파 사업자의 저작권
2. 단말기 제공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와의 갈등. 이슈: 통신 사업자의 일방적 송출 중단 🡪 스마트 TV 접속 제한. 스마트 TV로 인한 트래픽 문제
3. 네트워크 사업자간의 갈등: 통신사업자간,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간의 갈등

▲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몸 경영을 통한 마음과 영혼의 발전**

* 경영학이 인간의 몸을 어떻게 간주하고, 경영할 것인가로까지 경영학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몸에 대한 규정
1. 물성, 감성 심성(이성) 영성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 존재에 영향을 줌
2. 몸의 움직임이 정지되면 에너지 흐름이 막히고 움직임이 지나치면 흐름이 왜곡됨
3. 인간은 살아있는 몸적 통일체
4. 몸은 지성, 감성, 영성이 통합되어 있는 현존, 진정성의 실체임
* 몸의 움직임의 체험을 통한 몸 경영: 몸은 소우주이며, 몸의 움직임(춤)의 체험을 통해서 몸 경영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음
* 몸 경영의 의미
1. 몸경영을 한다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소통행위이고 우주적인 생명 행위, 몸경영은 사회의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 몸경영은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 자신(조직)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과정으로 개인적으로는 내면의 의식과 감정으로 시작해서 사회적으로는 우주와 인간세상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
2. 몸경영은 자아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으로 의식의 성장을 가져옴
3. 몸경영의 의미는 ‘지금, 여기’ 현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동체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살게 하는데 있음

▲ **김대곤 (오방리더십센터 원장): 아시아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리더십의 진화**

* 아시아 지역에 역동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음
* 아시아 경제는 연평균 7.5%성장세에 있으며, 아시아경제규모는 2050년에 전세계의 52%가 될 전망임
* 세계의 중산층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2009)에서 66%(2030)로 신장할 전망
* 현재 아시아는 정치 지도자의 교체시기에 있음
* 대만(1월 총통선거), 러시아(3월 푸틴 차기대통령으로 재등장), 중국(10월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새 국가주석 등장예정), 한국(12월 대통령선거),북한(2011년 12월 김정일사망후 김정은 체제로 전환
* 우리는 현재 서구 리더십의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